

# 저소득층 편부모의 자아통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숙 · 원 영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편부모의 자아통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대상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집된 48개 지역에 거주하는 635명의 편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은 우울증,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이며, 독립변수로 인구사회적 배경 요인(모델 1), 사회적 지원 요인(모델 2), 자아통제 요인(모델 3)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자아통제 요인은 내외통제성,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울증 모델에서는 자아통제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내적 통제감이 높고 소극적 대처력이 낮고 적극적 대처력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게 나타났다. 다른 유의한 변인은 건강상태로 건강할수록 우울증이 낮았다. 2) 자존감 모델에서는 자아통제 요인 중 내외통제성과 적극적 대처력이 유의한 변인으로 판명되어, 내적 통제감이 높고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하는 편부모일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또한 고연령이고, 건강상태가 좋고, 종교를 갖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3) 삶의 만족도 모델에서는 자아통제,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가 유의한 변인으로 분석되어, 내적 통제감이 높고, 소극적 대처는 낮으며 적극적 대처력이 높은 편부모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건강, 종교, 자녀와의 관계는 두 모델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자아통제 요인을 첨가하자 의미가 없어졌다.

예상외로 부모, 형제, 친구, 공공기관, 종교기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거의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미미한 편으로 변이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편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는 물론 자아통제를 제고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하는 주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저소득층 편부모의 자아통제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적극적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저소득층 편부모, 자아통제, 심리적 안녕감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문제제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는 가족형태중의 하나는 편부모가족이다. 편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미혼모, 가출, 별거,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조흥식 외, 1997). 이의 가족은 질병, 사고 및 산업재해 등 배우자의 사망으로 형성되지만 이혼이나 미혼모 증가 등의 요인이 상대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부모가족의 추세는 이혼율의 증가 및 중년의 성별 사망률 차이를 감안시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편부모가구수는 1985년 848천 가구였으나, 1990년 889천 가구, 1995년 960천 가구, 그리고 2000년 1,124천 가구로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체가구중 편부모가구 비율은 1985년 6.2%에서 1990년 5.8%, 1995년 5.7%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0년에는 6.1%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2).

이러한 편부모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 가족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 점차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편부모는 배우자 상실 이외에도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성취도 저하, 성역할 부재, 비행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이와 같이 편부모가족은 개인이나 가족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양상을 갖기 쉬우며 가족 해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가족원의 가출이나 재혼 등 소년소녀가장 또는 노인가장 문제, 자녀들의 시설입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최해경, 1997).

그 동안 편부모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편부모에 대한 실태 또는 현황, 그리고 복지대책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고순이, 1990; 공세권 외, 1995; 김수영, 1989; 김정자 1985, 1988; 백경희, 1987; 보건복지부, 1999; 신수자 1995; 이상현, 1998; 조미희, 1999). 한편,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적응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완충효과, 스트레스, 적응(김영희, 1988; Olson & Banyard, 1994; Simons et al., 1993), 사회적 관계망(최해경, 1997; Rhodes et al., 1994), 사회 지원(신화용·조병은, 1996; Buehler & Legg, 1993; McLanaha et al., 1981, Zastowny & Lewis, 1989)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아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만족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자아통제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상황에 대한 인지나 반응은 개인의 자아통제 요인에 의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아통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특히, 저소득층 편부모는 일반가족과 달리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외에 과중한 역할부담, 만성적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위축 등 생활적응상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편부모는 생활상 여러 어려움이 노출되고 자신의 대처상황이 많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자아통제가 그들 자신의 심리적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적응을 더욱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편부모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통제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특히 자아통제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저소득층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자아통제와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 1) 자아통제의 개념

자아통제란 개인의 환경에 대한 통제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및 이의 행동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통제의 개념을 내외통제성 및 이의 대처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은 일생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 또는 운명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믿는 신념이다. 즉, 개인이 행동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내적 통제감 및 외적 통제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통제감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신념에 근거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또는 어떤 강화를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고정적 특성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회활동에 더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Levenson, 1972).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외적 통제감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 우연, 운명 등 다른 강력한 것 등에 지배받고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데(Rotter, 1977), 외적 통제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 비난적으로, 좌절상황에 건설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Butterfield, 1964).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 보다 낮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외적 통제감을 가진 개인은 내적 통제감을 가진 자보다 상황적 어려움에 위협을 더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통제의 개념중 대처방안이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아통제가 이를 표출하는 대처양식에 관련성이 있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내외통제성은 사건의 유해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대처방안은 상황에 대한 통제평가로서 대처 자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Folkman, 1984).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대처방안은 적극적 방안 및 소극적 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이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지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대부분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다른 데로 전치시키는 수동적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2)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념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는 자존감,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측면으로 파악된다. 우울이란 정상적인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상실,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 절망, 비판, 침울함, 무력감 및 가치감, 활동억제, 자존감 저하, 자기비하 등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이다(Beck & Rush, 1977).

자존감은 자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개인이 바람직하게 환경에 적응하고 건전한 이성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긍정적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oopersmith, 1967).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되며, 인간에게 있어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잠재력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개인의 자존감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성취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인 상태(Liu, 1977)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안녕감(well-being), 적응(adjustment)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태도로 평가하는 것이며(George, 1981),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감정(Medley, 1976)이다. 삶의 만족도의 여부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치가 있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심리적 안녕감이나 주관적인 복지감을 나타내는 감정상태라 할 수 있다.

## 2.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 의해 밝혀진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육수준은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한 지표인 동시에 삶에 대한 개인적 태도 및 가치에 영향을 준다.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개인은 독립심 및 개인주의 가치를 보다 많이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이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정적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신화용·조병은, 1996).

소득정도는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김정자 외, 1985; 신화용·조병은, 1996). 편부모의 심리적 적응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과 부정적 관계가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할수록 우울감이 높은 편이다(Richards & Schmiede, 1993; MaLanahan & Booth, 1989). 즉, 수입이 적을수록, 생활비를 의존할수록 편부모의 우울증이 높

게 나타났다(김태현 · 조희선, 1991; 안명자, 1994).

경제활동 여부는 경제상황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회활동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와 연관된다. 직업이 없을 경우 편부모의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편으로 건강상태의 저조나 신체적 약화 등 건강문제가 발생시 심리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ompas & Williams, 1990).

가족관계 역시 편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최해경, 1997;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편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가깝게 느낄 때 우울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Gongla & Thompson, 1987; Ma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ge, 1993).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부정적 변화가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신화용 · 조병은, 1996). 가족의 응집력과 표현력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았고,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의 기능적 특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족의 지지는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성윤 · 오경자, 1998).

그밖에 성별, 연령이나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 2) 사회적 지원

편부모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 지원은 심리적 만족감에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자원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정체감 확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Rasche, 1977). 사회적 관계망 또는 사회적 지지는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관계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Brown & Harris, 1978). 또한, 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의 적응능력을 돕는 중요한 대처자원으로서 인식되는데, 개인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본다(김영희, 1998).

편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편부모의 안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타인에게 자주 의존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될 수 있다(Rhodes, Ebert & Meyers, 1994). 예를 들어 Keith(1982, Kissman & Allen, 1993에서 재인용)는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물질적 도움과 충고가 빈곤층 편모의 우울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원의 유형 중에서 정서적 지원이 빈곤층 편모의 우울과 부적응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원 중 경제적, 정보적 지원은 편모들의 심리적 적응에 독립적 영향은 물론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러한 지원을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김영희, 1998).

## 3) 자아통제

편모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변화에 유동적일수록, 통제감이 높을수록 적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편모의 심리적 자원이 중요요인이라 볼 수 있다(MaLanahan & Booth, 1989). 편모가족들

은 소득 적을수록, 배우자와 이별 후 자녀관계의 부정성을 인지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그렇지만 이들이 상황에 일률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심리적 적응에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 즉 동일한 상황에 직면시 다르게 반응하고 평가하여 적응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Simons et al., 1993). 이때 이러한 개인차는 편부모의 처한 상황적 요인, 즉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처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부각되기도 한다(Bankoff, 1983; Holloway & Machida, 1991).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 편부모이다.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부모의 생활상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달 이상이 소요되었고, 편부모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우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역으로서 전국 8개 대도시와 8개 도에서 3개 지역을 추출하여 총 4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편부모가족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가 50%,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50%를 차지하도록 나누었는데,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다시 2 대 1의 비율로 배정하여, 중소도시 16개 지역과 군지역은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표본지역 추출을 위해서 사전에 전국 16개의 시청과 도청 편부모담당 공무원에게 각 시도에서 가장 편부모가 많은 지역 3-5개를 추천받은 후, 해당 지역 편부모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에 응한 지역 48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48개 지역 중, 2개 지역(대도시 1지역과 중소도시 1지역)은 조사기간 중 편부모담당 공무원의 교체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이 회수된 지역은 46개 지역이다.

설문은 지역당 22부씩(총 1,056부) 배부하였고, 이 중 99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3.8%로 매우 높았다. 우편조사로써 이렇게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여러 차례 전화로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또한 실무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회수된 991부의 설문지 중 편부모의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985부를 결과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중,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에 있어서 무응답이 없는 사례인 635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편부는 139명(21.9%)이고 편모는 496명(78.1%)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설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불가능했고, 응답자가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응답내용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 2)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는 우울증,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변수가 사용되었다. 우울증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척도를 근거로 문항간 내적일치도가 낮고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7가지 항목(①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② 삶이 행복하다: ③ 친구와 가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하다: ④ 매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⑤ 두려움을 느낀다: ⑥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⑦ 외로움을 느낀다)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되는데, 긍정적 항목은 변수값 전환을 하였다. 7개 항목은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7-35점이다. 이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의  $\alpha$  값은 0.78이다.

자존감은 Rosenberg(1979)의 척도에서 문항간 내적일치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총 4 문항(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②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③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④ 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는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20점이다. 이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의  $\alpha$  값은 0.84이다. 삶의 만족도는 1개 척도로 구성된 변수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의 분석을 위해 3가지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 1은 인구사회적 요인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모델 2는 인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원을 포함시켰다. 모델 3에는 앞의 두 요인에 본 연구의 초점인 자아통제 요인을 첨가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구사회적 요인에는 성, 연령, 학력, 수입, 건강상태, 종교, 경제활동 여부, 자녀와의 관계를 포함시켰다. 성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dummy 변수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초중졸, 중졸 및 중퇴, 고졸 및 중퇴,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건강상태는 편부모가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교는 dummy 변수화하여, 종교가 없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경제활동여부 변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1로,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은 2로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는 편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운 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원요인에는 가족과 단체로부터의 지원여부를 포함시켰는데, 부모로부터 지원, 형제로부터의 지원, 친구로부터의 지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 등이 그러하다. 각 변수는 dummy 변수화하였고, 준거집단은 각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자아통제 요인을 내외통제성,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등 3가지로 살펴보았다. 내외통제성은 3항목(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② 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할 수 없다고 느낀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다. 내적 통제력을 나타내도록 일부 문항을 역순화하였다. 이 변수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소극적 대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지 않고 삶을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처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 3가지 항목(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② 팔자소관으로 돌렸다; ③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였다)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다. 적극적 대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는 3항목(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② 긍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갔다; ③ 내가 처한 상황을 나의 인간적 성숙의 계기로 삼았다)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for windows 10.1 version을 사용하였다.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였고,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인을 단계별로 첨가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의수준은  $\alpha \leq 0.05$ 이다.

## 4. 연구결과

###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편부(139명)와 편모(496명)에 있어서 각각 연령, 학력, 수입,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우선 연령분포를 보면 편부와 편모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편부가 편모보다 연령이 약간 높았고 편부는 40대가 가장 많은데 비해, 편모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편부보다는 편모가 고졸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부는 편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약간 더 낮았다. 수입은 편부에 비해서 편모의 수입이 더 낮았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경우는 편부 16.8% 편모 12.6%로 편부가 더 높았다.

건강상태는 대체로 보통 36.1%, 아픈 편이다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별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편부와 편모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에 있어서는 편부는 무교가 가장 많은 55.4%이었고, 불교 28.1%, 기독교 10.8%의 순인데 반해, 편모도 무교가 가장 많은 36.7%이기는 하나 편부보다는 무교의 비율이 낮고 불교 26.9%, 기독교 24.3%로 편부보다 기독교의 비율이 10% 이상 더 높았다.

경제활동 여부에 있어서는 편부(65.5%)보다 편모(79.8%)의 취업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가깝다와 가깝다가 각 36.6%, 32.3%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편부가 편모에 비해서 자녀과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더 많았다. 편부는 10% 이상이 자녀와 관계가 멀다고 하였는데, 편모는 3%만이 이를 지적하였다.



<표 1> 편부모의 인구사회적 배경

(단위: %, 명)

구 분		편 부		편 모		전 체		카이 자승값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연령	20대	4	2.9	19	3.8	23	3.6	8.244**
	30대	53	38.1	237	47.8	290	45.7	
	40대	72	51.8	225	45.4	297	46.8	
	50대이상	10	7.2	15	3.0	25	3.9	
	전체	139	100	496	100	635	100	
학력	초등졸 이하	30	21.6	88	17.7	118	18.6	3.717*
	중졸/중퇴	45	32.4	134	27.0	179	18.2	
	고졸/중퇴	52	37.4	225	45.4	277	43.6	
	대졸 이상	12	8.6	49	9.9	61	9.6	
	전체	139	100	496	100	635	100	
수입	수입없음	23	16.8	61	12.6	84	13.5	7.293*
	1-30만원	24	17.5	96	19.6	120	19.4	
	31-60만원	56	40.9	234	48.4	290	46.8	
	61-90만원	25	18.2	75	15.5	100	16.1	
	91-120만원	8	5.8	12	2.5	20	3.2	
	120만원이상	1	.7	5	1.0	6	1.0	
	전체	137	100	483	100	620	100	
건강 상태	매우 아프다	16	11.5	57	11.5	73	11.5	3.431
	아픈 편이다	46	33.1	166	33.5	212	33.4	
	보통	46	33.1	183	39.6	229	36.1	
	건강한 편이다	26	18.7	83	16.7	109	17.2	
	매우 건강하다	8	3.6	7	1.4	12	1.9	
	전체	139	100	496	100	635	100	
종교	불교	39	28.1	132	26.6	171	26.9	27.345***
	천주교	4	2.9	36	7.3	40	6.3	
	기독교	15	10.8	139	28.0	154	24.3	
	기타	4	2.9	7	1.4	11	1.7	
	무교	77	55.4	192	36.7	259	40.8	
	전체	139	100	496	100	635	100	
경제 활동 여부	한다	91	65.5	396	79.8	487	76.7	11.745***
	안한다	48	34.5	100	20.2	148	23.3	
	전체	139	100	496	100	635	100	
자녀와 의 관계	매우 멀다	3	2.2	1	0.2	4	0.6	52.942***
	비교적 먼 편이다	12	8.6	14	2.8	26	4.1	
	보통	61	43.9	105	21.3	166	26.3	
	가까운 편이다	36	25.9	168	34.1	204	32.3	
	매우 가깝다	27	19.4	204	41.5	231	36.6	
	전체	139	100	492	100	631	100	

## 2)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표 2〉 참조). 우울증(7항목)은 전체 평균이 21.26이었고, 편부 21.02, 편모 21.32로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항목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점 전후가 되어서 우울증 수준은 보통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존감(4항목)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은 12.92, 편부 11.99, 편모 13.19로써 편모가 편부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편부는 항목 평균이 중간점수인 3점이 안 되는데 반해서, 편모는 3점을 넘어 편부의 자존감이 평균이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2.52, 편부 2.32, 편모 2.58로써 편모가 더 높기는 했으나, 두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

(단위: 명)

항목	편부	편모	전체	T 값
우울증	21.02 (126)	21.32 (462)	21.26	-.572
자존감	11.99 (139)	13.19 (486)	12.92	-4.208***
삶의 만족도	2.32 (139)	2.58 (496)	2.52	-3.511***

주: 우울증: 7개 항목(5점 척도)의 합, 최소 7~최대 35

자존감: 4개 항목(5점 척도)의 합, 최소 4~최대 20

삶의 만족도: 1개 항목(5점 척도)의 합, 최소 1~최대 5

## 3) 편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

편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5개 차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에는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전체의 3분의 1만이 받고 있었다. 형제지원은 편부 42.4%, 편모 37.5%로 부모로부터의 지원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38.6%에 불과한 수준이다. 친구로부터의 지원도 형제지원과 같이 전체적으로 38.4%의 수준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가장 많은 74.6%이고, 편부 80.6%, 편모 73.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가장 낮은 23.0%이고, 편부 25.9%, 편모 22.2%의 분포이다.

모든 사회적 지지항목에서 편부와 편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편부모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제외한 비공식적 및 공식적 지원을 매우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3.4%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외에도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편부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편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

(단위: 명, %)

항목	편부 (139)		편모 (496)		전체 (635)		카이 지승값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부모 지원	33.1	66.9	32.7	67.3	32.8	67.2	000
형제 지원	42.4	57.9	37.5	62.5	38.6	61.4	922
친구 지원	39.6	60.4	38.1	61.9	38.4	61.6	046
공공기관 지원	80.6	19.4	73.0	27.0	74.6	25.4	2.917
종교단체 지원	25.9	74.1	22.2	77.8	23.0	77.0	652

## 4) 편부모의 자아통제 수준

편부모의 자아통제를 내외통제성,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내외 통제성의 경우 3항목 총합 전체 평균은 9.86이었고, 편부 9.51, 편모 9.96으로 편모의 내적 통제감이 약간 더 높았다. 두 집단 모두 항목 평균 내외통제성 수준은 3점에서 4점 사이로 보통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극적 대처는 3항목 전체 평균이 10.99였고, 편부 10.14, 편모 11.23으로 편모가 소극적 대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편부보다는 편모가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대처는 3항목 전체 평균 10.29, 편부 9.80, 편모 10.43으로 이것도 역시 편모 점수가 더 높았다.

〈표 4〉 편부모의 자아통제 수준

(단위: 명)

항 목	편부	편모	전체	T 값
내외 통제성	9.51 (139)	9.96 (496)	9.86	-2.2116*
소극적 대처	10.14 (139)	11.23 (496)	10.99	-5.735***
적극적 대처	9.80 (139)	10.43 (496)	10.29	-3.855***

주: 통제감,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각 3개 항목(5점 척도)의 합, 최소 3 ~ 최대 15

편모가 편부보다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점수가 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편모는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비율도 높고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의지도 높은 두 개의 상반된 대처력을 동시에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모들이 삶에 대해 양극단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편부모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5)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선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구사회적 요인만을 사용한 모델 1에서는 건강상태와 자녀관계가 유의한 변수이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울증 정도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건강상태가 나쁘고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할수록 편부모는 우울증이 더 높았다.

사회적 지원요인을 첨가한 모델 2에서도 건강상태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유의한 변수이었다. 사회적 지원변수 5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지원을 받은 편부모가 이를 받지 않은 편부모 비해서 우울증은 유의하게 낮지 않았다. 자아통제요인을 첨가한 모델 3에서는 건강상태, 내외통제성,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가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건강상태가 좋고, 내적 통제감 정도가 높으며, 소극적 대처 정도는 낮고, 적극적 대처 정도는 높은 편부모가 우울증이 낮았다.

모든 모델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편모와 편부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우울증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기타 인구사회적 변인도 유의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지원요인 중 하나의 변수도 유의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표 5〉 편부모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모델		사회적 지원 모델		자아통제감 모델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9.661		30.438		30.215	
인구사회적 요인						
성(여자=0)	-.265	-.050	-.632	-.049	-.568	-.044
연령	-.042	-.045	-.050	-.053	-.039	-.041
학력	.094	.019	.072	.015	.398	.081
수입	.044	.009	.075	.015	.129	.025
건강상태	-1.277	-.229***	-1.287	-.231***	-1.085	-.195***
종교(없음=0)	-.747	-.069	-.785	-.073	-.418	-.039
경제활동여부	-.441	-.033	-.384	-.030	.115	.009
자녀와의 관계	-.653	-.114**	-.703	-.123**	-.181	-.032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없음=0)			.269	.024	-.006	-.001
형제지원(없음=0)			-.087	-.008	-.007	-.006
친구지원(없음=0)			-.629	-.058	-.268	-.025
공공기관지원(없음=0)			-.046	-.004	-.618	-.050
종교단체지원(없음=0)			-.214	-.017	-.579	-.047
자아통제요인						
내외통제성					-.794	-.317***
소극적 대처					.573	.183***
적극적 대처					-.258	-.099*
N	571		571		571	
F값	5.417***		3.511***		8.930***	
R2 (adj. R2)	.072(.058)		.076(.054)		.205(.182)	

두 번째는 자존감 모델이다. 모델 1에서는 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종교,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편모,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편부모가 자존감이 더 높았다. 수입과 경제활동여부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

즉 경제적 측면은 자존감에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지원 요인을 첨가한 모델 2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중 성, 연령, 학력, 건강상태, 종교,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원요인 중에서는 공공기관지원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사회적 변인의 유의성을 변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요인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편부모가 그렇지 않은 편부모보다 자존감이 낮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편부모는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의미에는 공공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 편부모들이 수치감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편부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모델		사회적 지원 모델		자아통제감 모델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729		3.736		-1.949	
인구사회적 요인						
성(여자=0)	-.622	-.089*	-.543	-.075**	-.224	-.031
연령	.064	.021**	.056	.105**	.036	.067*
학력	.296	.107**	.285	.103*	.026	.009
수입	.240	.084	.236	.082	.114	.040
건강상태	.384	.123**	.397	.127**	.333	.107***
종교(없음=0)	.770	.126***	.792	.130***	.384	.063*
경제활동여부	.482	.066	.560	.078	.312	.043
자녀와의 관계	.973	.299***	.932	.286***	.228	.070*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없음=0)			-.212	-.033	.387	.061*
형제지원(없음=0)			-.337	-.055	-.280	-.045
친구지원(없음=0)			.282	.046	-.046	-.007
공공기관지원(없음=0)			-.616	-.089*	-.376	-.054
종교단체지원(없음=0)			-.537	-.076	-.027	-.004
자아통제요인						
내외통제성					.511	.357***
소극적 대처					-.039	-.022
적극적 대처					.567	.383***
N	606		606		606	
F값	20.941***		14.181***		42.533***	
R2 (adj. R2)	.219(.209)		.237(.221)		.536(.523)	

자아통제요인을 첨가한 모델 3에서는 인구사회적 배경 중 연령, 건강상태, 종교,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한 요인으로 남았고, 사회적 지원요인에서는 부모지원이 유의한 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자아통제 요인 중에서는 내외통제성, 적극적 대처가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고연령이고, 건강하며 종교

가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가깝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통제감 정도가 높고 적극적 대처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더 높았다. 자아통제 요인을 첨가하자 성별 및 학력별 차이는 유의성을 잃어버렸다. 특이하게도 세 모델에서 모두 경제적 요인(수입과 경제활동여부)은 유의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모델에서는 우선 인구사회적 요인중 수입, 건강상태, 종교,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종교가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가까운 편부모가 그렇지 않은 편부모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모델 2에서는 유의한 인구사회적 요인은 모델 1과 같이 수입, 건강상태, 종교, 자녀와의 관계이었다. 사회적 지원 요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3에서는 자아통제 요인을 첨가하자 인구사회적 배경 요인이 모두 유의성을 잃었고 사회적 요인 중에도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그러나 자아통제 요인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통제감 정도가 높고 삶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적으며, 대신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부모가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편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모델		사회적 지원 모델		자아통제 모델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470		1.490		1.075	
인구사회적 요인						
성(여자=0)	-.137	-.072	-.127	-.066	-.123	-.065
연령	-.003	-.024	-.003	-.021	-.005	-.032
학력	-.018	.025	-.016	-.021	-.057	-.078
수입	.084	.112*	.075	.100*	.055	.074
건강상태	.071	.086*	.074	.090*	.060	.069
종교(없음=0)	.163	.102*	.169	.105**	.120	.074
경제활동여부	.076	.040	.087	.046	.034	.018
자녀와의 관계	.158	.184***	.160	.187***	.070	.082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없음=0)			-.081	-.048	-.018	-.010
형제지원(없음=0)			-.032	-.020	-.036	-.022
친구지원(없음=0)			.135	.083	.089	.055
공공기관지원(없음=0)			-.108	-.059	-.056	-.031
종교단체지원(없음=0)			.008	.004	.075	.040
자아통제 요인						
내외통제성					.100	.267***
소극적 대처					-.041	-.090*
적극적 대처					.053	.137**
N	616		616		616	
F값	8.570***		5.693***		9.773***	
R2 (adj. R2)	.101(.090)		.109(.090)		.207(.186)	

## 5. 요약 및 논의

이상에서 저소득층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의 정도와 자아통제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편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서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인 우울증, 자존감,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편모가 편부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약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의 자아통제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외통제성, 소극적 대처, 적극적 대처 등 세 변수로 구성된 자아통제 변수는 거의 모든 모델에서 유의하였다. 우울증 모델에서는 내적 통제감이 높고, 소극적 대처 정도는 낮으며 적극적 대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았다. 자존감 모델에서는 내적 통제감이 높고 적극적 대처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 모델에서는 내적 통제감이 높고 소극적 대처정도는 낮고 적극적 대처정도는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거의 모든 모델에서 자아통제 요인은 인구사회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원요인보다도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편부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은 거의 모든 모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다고 해도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오히려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편부모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특히 공적 지지망이 주로 경제적 지원뿐인 특성과 경제적 지원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성별 차이도 거의 유의하지 않았다. 자존감 모델에서만 유의했는데, 그나마 자아통제 요인을 통제하였더니 유의성이 상실되었다. 즉, 편부의 열악한 심리적 상태는 성별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 특히 자아통제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또한, 경제적 요인은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삶에 대한 만족도 모델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것도 성별처럼 자아통제 요인을 통제하였더니 그 유의성이 사라졌다. 즉, 심리적 안녕감은 수입의 파다보다는 편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상태는 거의 모든 모델에서 매우 유의한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편부모의 건강 수준은 보통이거나 그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편부모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지적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는 경제적 요인보다도 유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편부모들은 가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은 편이다. 김미숙 외(2000)는 편부모 자녀 중 초등학생들은 누구의 보호없이 혼자서 보내는 경우도 전체의 40%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짧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편부모의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따라서 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편부모들이 자아통제를 제고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심정을 제거하도록 하는 실제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편부모의 자아통제를 높일 수 있도록 편부모를 위한 자조단체, 재혼상담 등 정서적 지원, 가족관계적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편부모,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교육이나 의사소통훈련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 대두된 개념인 resilience를 편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공새권 외. 1995. "결혼가족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p. 95-03.
- 김순이. 1990. "도시빈곤 모자가정 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김수영. 1989. "저소득모자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연구, 8.
- 김영희. 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안성산업대학교논문집, 제28집, pp. 245-252.
- 김정자 외. 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p. 6, pp. 30-78.
- 김정자 외. 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p. 20, pp. 5-43.
- 배성운·오경자. 1998. "가족의 지지 및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98년 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57-171.
- 백경희. 1987. "빈곤모자가족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보건복지부. 1999.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결과요약".
- 신수자. 1995. "부자가정의 특성과 대책",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신화용·조병은. 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총》, 제8호, pp. 57-76.
- 안명자. 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이상헌. 1998. "편부가정의 실태와 지원방안", 《보건사회연구》, 제18권 제2호, pp. 106-135.
- 조미희. 1999.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복지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조홍식 외. 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 최해경. 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p.11, pp.377-395.
- 한국가족관계학회. 1996.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그들의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 허정원·옥선화. 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후 적응", 『생활과학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제23권, pp.37-48.
- 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 Bankoff, E. A. 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 827-839.
-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 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 pp. 30-42.
- Compas, B. E. & Williams, R. A. 1990. "Stress, coping,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aug, 18, 4, pp. 525-545.
- Bulterfield, 64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onati, "Single Parents and Wider Families in the New Context of Legitimacy" in S. M. H. Hanson, M. L. Heims, D. J. Julia n, & M. B. Sussman (eds), *Single Parent Families: Diversity, Myths and Realities*, 1995, pp. 27-42.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pp. 839-852.
- George, L. K. 1981. "Subjective well-be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Eisdoefer, C. (Ed.),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2, (pp.345-382), N.Y.: Springer.
- Gongla, Patricia A. & Edward H. Thompson, Jr. 1987, Single-Parent Families, in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397-418), New York: Plenum Press,
- Kissman, K., & Allen, J. A. 1993. Single-parent Families, Newbury Park: Sage.
- Lino, Mark, "The Economics of Single Parenthood: Pas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Marriage & Family Review*, Vol. 20, No 1/2, 1995, pp.99-114.
- Ma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557-580.
- MaLanahan, S., Wedemeyer, N. & Adelberg, T. 1981. Network structur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pp. 601-612.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pp. 448-454.
- Olson, S. L., & Banyard, V. 1993, Stop the world so I can get off for a while: Sources of daily stress in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42, pp. 50-56.
- Richards, L., & Schmiede, C.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277-285.
- Rhodes, J. E., Ebert, L., & Meyers, A. B. 1994. Social support, relationship problems and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young African-American mot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587-599.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no. 609.
- Simons, R, Bearman, J., & Cogner, R.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Zastowny T. R., & Lewis, J. L. 1989. Family interactional patterns and social support system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13, 2, 1-40.
- Weitzman, L. J. "The Economics of Divorce: Social Economic Consequences of Property, Alimony, and Child Support Awards" *UCLA Law Review*, Vol 28, 1981, pp.1181-1268.